

Socket lift가 필요한 경우 Osteotome을 이용한 보철 수복

이일권 *, 오상천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상악 구치부가 결손된 경우 국소의치나 캔틸레버형 보철물 대신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수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임플란트의 표면처리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상악 구치부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치아 상실 기간이 길거나 중증치주질환에 이환되어 발치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상악동의 함기화로 임플란트의 식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악동 개창법을 이용하여 골이식을 실시하고 수개월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는 일반 치과의사들이 시행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자에게도 치료 기간과 외상 등의 문제점으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본 증례보고에서는 개창술을 시행할 경우와 socket lift를 시행할 경우의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통상으로 알려진 Sommer's osteotome technique과는 다른 osteotome technique의 시술방법에 따라 상악 구치부를 수복한 임상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